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2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54)	봉헌 (211)	성체 (165)	파견 (39)
---------	---------	----------	----------	---------

### 미사 전례 예절

- 사제가 미사 중간 중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교우들은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인사를 주고받는데, 사제를 향해 간단한 목례로 인사할 수는 있으나 허리를 굽혀하는 깊은 절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말로만 주고받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 때에도 허리를 굽히며 예를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예를 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도신경을 바칠 때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에서는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해야 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10	이 마틸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김바오로
6/17	이 그레이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김바오로
6/24	이 마틸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김바오로
7/1	유 요한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김바오로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35	\$	\$2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6/2	손 아놀드/ 손 쟈마
5/5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6/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5/12	김 마론/ 김 헬레나	6/16	박 벨라뎃타/ 정 루시아
5/19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6/23	이 요한/ 이 마틸다
5/26	황 가롤로/ 전 제노베파	6/30	유 요한/ 유 마리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7 월 5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7 월 8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로마서로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오늘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소 공동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아버지의 날 축하 드립니다.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식사가 준비됩니다.

납가주 성령 쇄신 대회 참가 신청 8 월 25,26 일

성령 쇄신 대회 참가신청을 이번 주부터 받습니다.

이번 대회의 참가 비용 절반(50%)을 성당에서 지원합니다.

No refundable reservation fee (개인당 \$20)를 참가 신청 시 미리 내셔야 합니다.

호텔 예약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 구역장님, 재무부장님\*\*

말씀의 이삭

장미꽃을 팔던 아이

-최희 마리나 | 아나운서-

몇 해 전, 친구와 여름휴가로 태국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모처럼 여행도 갔으니 기분도 낼 겸 좋은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넘어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일곱 살 정도로 보이는 한 아이가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장미꽃 한 아름을 안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길거리에서 여행객들에게 그 장미꽃을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까지 그 길 위에서 장미꽃을 파는 아이가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선뜻 아이에게 다가가 '이 장미꽃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한국 돈으로 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야기하였고, 저는 웬지 바가지를 쓰는 기분이 들어 절반 가격으로 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절반의 가격에 꽃을 주었습니다. 아직 팔 꽃이 남았는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아이를 뒤로하고 저는 좋은 일도 하고, 예쁜 꽃도 샀다는 기쁜 마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너 정말 착하다'고 칭찬을 해주니 더욱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할 무렵,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계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싼 음식에는 기꺼이 많은 돈을 냈으면서 길 위의 아이에게는 바가지를 쓰고 싶지 않아 오천 원을 깎았던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 꽃을 사 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 여겼는데, 그 마음 안에도 이미 이기심과 계산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을 기꺼이 나누는 것도 아니었고, 진정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저 자신을 위한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루카복음서 12장 3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주님께서서는 가진 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을 이웃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것, 내가 아끼는 것을 이웃과 나누라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마태오복음서 6장 2절에서는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선행일 것입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아이를 찾아갔지만, 이미 아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만난다면 남은 꽃을 몽땅 산 후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아이는 남은 꽃을 팔기 위해 또 다른 곳으로 떠난 듯했습니다. 누구나 좋은 일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선행'은 정말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선행'의 의미를 떠올려봅니다.

- 서울 주보에서 -